

서울100 '작은변화로 서울의 공공공간을 바꾸는 100가지 아이디어'

정성빈



거리를 천천히 걷다보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도시경관들이 눈에 밝힌다. 사소하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조금 더 걷기 편하고 정돈된 거리로 마주하게 하는 보도화경 개선부터 도시를 생동감 있게 만드는 작은 아이디어들까지 연구모임 서울100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던 일상의 공간을 관찰하고 작은 변화를 상상하는 작은 연구입니다. 소수의 전문가가 그려내는 마스터플랜이 아닌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를 지향하며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목표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RTM100」 부제:100 interventions in the Rotterdam public space)

서울100 연구모임은 한권의 책으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도시건축을 공부하던 중 'RTM100'이란 미스터리한 책을 만나게 됩니다. 표지를 넘기면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한 쌍의 도시경관 이미지가 Before&After형식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틀린그림찾기같은 100쌍의 각 이미지는 보도환경·도시경관 개선에서 유휴공간 활용에 이르기까지 작은개입(변화)으로 공공공간을 변화시키는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URA와 Topotonic이라는 두 건축 집단에 의해 진행된 스터디의 결과물로 AIR(architecture center of Rotterdam)의 후원을 통해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공공건물, 카페등 로테르담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되어 공공공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 시키는 데에 작은 기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항공사진 위에서 선을 그려가며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설계를 해오던 나에게 신선한 물음으로 다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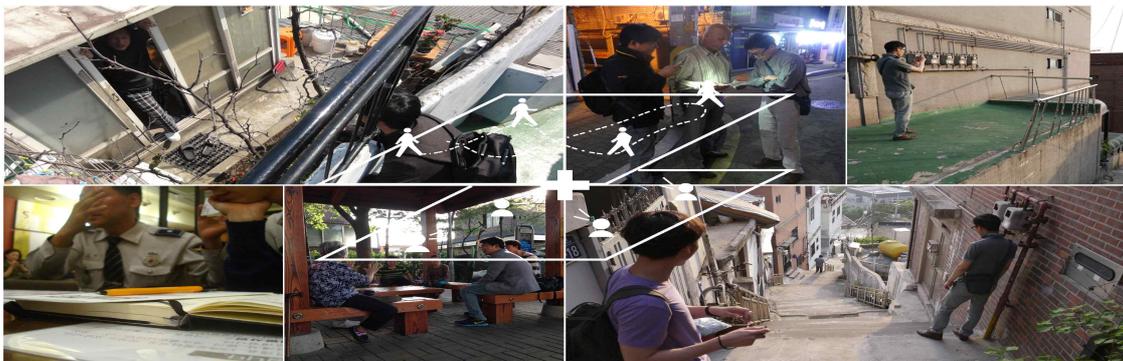


「RTM100」 내용 중 일부

‘서울 100’ 프로젝트는 ‘작은 공간을 자세히 관찰하며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은 연구’라는 의미로 한국에 돌아온 이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매 수요일마다 서울의 마을들을 답사하는 건축가 조정구님처럼 공간을 다루는 디자이너로서 눈의 화소 수를 높이는 연습이자 작은 실천들을 긴 호흡으로 이뤄보자는 소박한 마음가짐으로 출발했습니다. 유명무실하게 놓인 노란색 점자블럭부터 도심속 유후공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풍경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던 도시의 일상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변화로 사람들의 무표정한 표정과 무채색의 도시공간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상상들을 더해갔습니다



서울100 첫 번째 테스트베드인 이태원은 연구자의 낯선 시각에 인터뷰를 통한 주민들의 생각을 더하여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습니다. 지역 내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기능과 결합하는 생각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한 해 동안 마을만들기등 10여개의 프로젝트와 병행하며 진행해온 서울100 첫 번째 결과물이 한권의 책으로 완성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담긴 JPG파일들이 아날로그 종이책으로 만들어지는 시간동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프로젝트 속에서 Miners+100이란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 처음 서울100을 함께했던 2명의 선배는 함께 일을 하는 묘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울100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공공프로젝트 혹은 소수의 전문가가 만드는 마스터플랜이 아닌 일상의 공간들을 작은 변화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연구와 프로젝트를 하나씩 실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도시재생 분야에서 연관된 기존사업과의 접점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단단하고 밀도 높은 콘텐츠를 연구개발 하면서 이를 실제 공간과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만들기 위해 한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무(무)한도전의 정신으로 시작된 서울100연구모임이 언젠가 무한도전이 되길 바라는 즐거운 상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 이 글은 서울연구원의 2014년 「작은연구, 좋은서울」연구지원사업의 연구모임으로 선정되어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